

‘창업문당’ 소식지 8호 Q&A

유앤디플랜(편집디자인 및 광고물 제작) 임주현 대표

Q> 반가워, 먼저 자기소개 해줄래?

안녕! 나는 유앤디플랜(YOU&DESIGN PLAN) 대표 임주현이라고 해.

Q> <유앤디플랜>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줘.

내 사업은 발표 자료(PPT), 제안서, 인포그래픽, 리플렛 등 모든 편집디자인 및 광고물 제작을 해주는 일이야.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개념의 일을 주로 하고, PPT 제작에 대해서는 디자인 출강도 하고 있어.

Q> 시각디자인(ppt, 제안서, 브로슈어, 팜플렛)으로 창업하게 된 계기가 뭐야?

첫 회사에서 웹 개발/디자인을 하다가 디자이너로 회사의 모든 디자인을 담당했었어. 이후 공공기관으로 이직하고 다양한 회사에 디자인 용역을 맡기는데 결과물들을 보니 나도 잘해 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기관에서 직접 근무하면서 느낀 것들로 원하는 디자인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창업하게 되었어.

Q> 순천시 창업연당은 어떻게 입주하게 됐어? 또 입주해 보니까 어떤지 궁금해!

공공기관의 입주기업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수시로 찾다가 작년에 창업연당을 발견했어. 입주 후 아주 만족하고 있어. 업무 환경이 너무 쾌적하고, 내 공간에서 회의할 수 있으면서 무엇보다 다른 창업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야. 다른 업종의 여러 대표님을 만날 수 있고, 같이 협업하거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게 가능해졌어.

Q> 이 사업을 하면서 나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보통은 고객과 많이 소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제공하잖아. 내가 노력하고 있는 업무 스타일은 ‘소통 최소화’야. 최대한 고객을 귀찮게 하지 않고 알아서 원하는 바를 캐치하는거지. 내가 주로 판매하는 발표 자료는 무엇보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기관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으로 보고서에 대한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알고 있어. 디자인 외에도 프로세스, 일정, 예산 등까지 이해하고 있는 게 특히 강점이라고 생각해.

Q>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이걸 디자인으로 녹여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고객의 요구사항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반영해?

사실 고객의 요구사항은 단순하지. 예쁘고 깔끔하게. 여기에 내 경험과 데이터가 더해지는 거야. 고객이 발표 자료를 주문했을 때 발표 장소와 대상자 등 간단한 정보를 들으면, 폰트, 색상, 구성 등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바로 잡히는 것 같아. 그래픽 디자인처럼 창작이

기반을 두는 것들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나는 편집디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어.

Q>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직종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집순이! 업무 특성상 혼자 가만히 일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일주일씩 밖에 못 나가고 일만 하기도 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아. 나는 한 번도 여유롭게 일을 받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 그래서 일정의 압박을 잘 견뎌내고,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사실 경쟁사가 많은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영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밝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 받아오겠지만 내성적인 나도 좌충우돌 잘 이겨내고 있으니, 디자인이 재밌는 친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Q> 창업하기 전과 후에 생긴 변화가 있어? 사업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는 회사 생활을 재밌어했었는데 그럼에도 9 to 6가 싫었어. 하루에 대부분을 회사에 있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듯 창업 후 내 시간은 더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했다면 지금은 내 것을 키우니까 삶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 오히려 창업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지고, 플랜들이 자꾸 생기더라고. 어떻게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 생기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

Q> 뒤돌아보면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 어떤 순간이 가장 떠올라?

칭찬을 듣는 매 순간이 보람 있어. 사업이 성공하고 투자가 유치되는 등 고객이 나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나에게 주는 피드백을 들으면 뿌듯하지. 하지만 일이 많아서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어. 감사한 일이지만 하루 1~2시간 자는 삶을 두 달간 보냈을 때 밤을 새우고 출장에 다녀오는데 내가 일과 삶을 바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청춘을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싶었지. 현재는 또 영차영차 하고 있지만 워라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느꼈어.

Q>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목표가 있어?

지금은 유앤디플랜을 성장시켜서 순천에서 손에 꼽는 디자인 잘하는 회사로 만드는 게 목표야. 나중에는 요식업과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고 하고 싶어. 밤을 새워도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날 때까지 계속 도전하려고.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베풀며 재밌게 사는 게 최종 꿈이야.

Q>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줘.

인생의 끝은 창업이라고 생각해. 누구나 언젠가는 회사에 다니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창업하려는 아이템에 확신이 없고, 몇 년 뒤에 창업

해도 큰 영향이 없다면 직장 생활을 더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창업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젊은 날의 취업은 그렇지 않으니까. 창업을 결정했다면 내 삶과 일은 꼭 분리했으면 좋겠어. 돈을 위해 개인 시간을 포기한다면 나이, 건강과 교환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쪼록 건승을 빌어. 아자아자